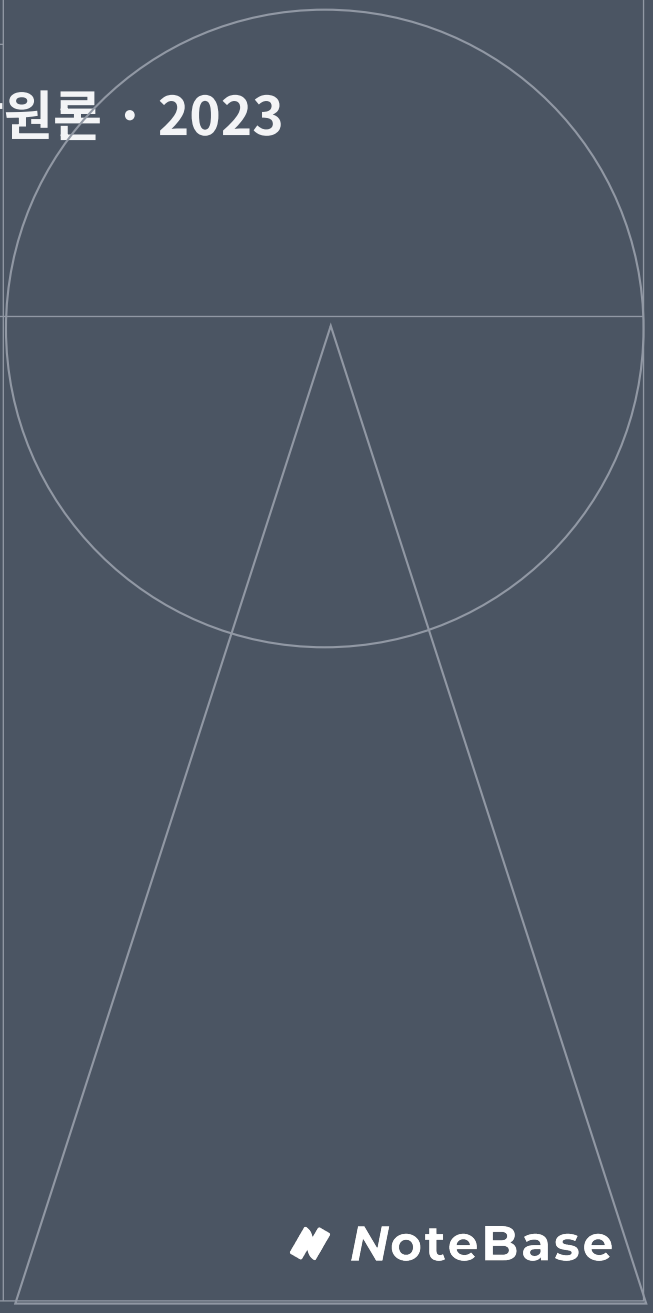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3

공무원/지방직/7급 · 경제학원론 · 2023

문 1.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촉진

② 명령-통제 정책

③ 소유권 확립

④ 피구세 부과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사적 의사결정에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내부화 수단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정적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비용을 주지만 그 비용을 발생시킨 주체가 부담하지 않는 상태이다. 해결의 핵심은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차이를 줄여 외부비용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데 있다.
명령-통제 정책은 배출기준·생산기준 등을 직접 정하는 방법이고, 소유권 확립은 당사자 간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며, 피구세는 외부비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산업 내 기업 간 경쟁 촉진은 독점력 완화와 시장경쟁에 관한 정책일 뿐, 오염 등 외부비용을 발생시킨 주체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경쟁 촉진'이며,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책은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규제·소유권 설정·피구세 등이다.
② O. 명령-통제 정책은 정부가 배출량, 배출기준, 기술기준 등을 직접 제한하여 외부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다.
③ O. 소유권을 명확히 확립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권리를 바탕으로 협상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은 경우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
④ O.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한계외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사적 한계비용을 사회적 한계비용에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시장실패의 원인을 혼동하게 한다. 경쟁 촉진은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는 정책이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전가된 비용을 내부화해야 해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외부비용을 발생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배출·행동을 직접 제한하는지 확인한다. 세금·보조금, 규제, 소유권과 협상은 외부효과 해결 수단이고, 단순한 경쟁 촉진은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해결 수단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부정적 외부효과는 '남에게 넘긴 비용'을 발생자에게 되돌리는 내부화로 해결된다.

NoteBase

문 2. 열등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② 가격 상승 시 대체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③ 가격 하락 시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④ 가격 변화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열등재의 소득탄력성과 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소득효과의 방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이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다.
대체효과는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더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효과이다.
소득효과는 가격 변화가 실질소득을 바꾸어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열등재에서는 실질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② O. 열등재라도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비싸져 대체효과는 해당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③ X. 틀린 표현은 '소비량을 증가시킨다'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④ O.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소비량을 늘리지만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줄인다. 가격 상승 시에도 두 효과의 방향은 각각 반대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가격 하락이 실질소득 증가를 뜻한다는 점만 보고 정상재의 소득효과를 적용하게 만든다. 열등재에서는 실질소득 증가가 오히려 해당 재화의 소비량을 줄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열등재의 소득탄력성이 음(-)임을 확인한다. 그다음 가격 하락이면 대체효과는 소비 증가, 소득효과는 소비 감소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고,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는 반대 방향이다.

NoteBase

문 3. A국의 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만 명이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일 때, A국의 고용률은?

① 80 %

② 75 %

③ 60 %

④ 55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생산가능인구를 구한 뒤 고용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경제활동인구는 400만 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00만 명이다. 실업자는 100만 명이므로 취업자는 300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인 500만 명이다.

사용할 공식

고용률은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이다. 고용률은 취업자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므로, 분모에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취업자 수는 400만 명-100만 명=300만 명이다.
2. 생산가능인구는 400만 명+100만 명=500만 명이다.
3. 고용률은 (300만 명)/(500만 명)×100=60\%이다.

선지 판단

① X. 고용률은 80%가 아니다. 80%는 (경제활동인구 400만 명)/(생산가능인구 500만 명)×100으로 계산한 경제활동참가율이다. 틀린 표현인 '80%'는 '6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고용률은 75%가 아니다. 75%는 (취업자 300만 명)/(경제활동인구 400만 명)×100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잘못 쓴 값이다. 틀린 표현인 '75%'는 '60%'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취업자는 300만 명, 생산가능인구는 500만 명이므로 고용률은 $\frac{300}{500} \times 100 = 60\%$이다.
④ X. 고용률은 55%가 아니다. 주어진 인구 구성을 모두 반영하면 계산 결과는 60%이다. 틀린 표현인 '55%'는 '60%'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75%처럼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쓰면 고용률이 아니라 취업자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①의 80%는 경제활동참가율이므로 고용률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빼 취업자 수를 구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해 생산가능인구를 구한 뒤,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고용률은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이다.

NoteBase

문 4.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2L^3K^2$으로 주어져 있다. 임금과 임대료가 각각 12 및 4일 때,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 비율은? (단, L은 노동이고, K는 자본이다)

① 노동을 자본의 2배 투입

② 노동을 자본의 4배 투입

③ 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

④ 자본을 노동의 4배 투입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투입조합에서 한계생산물의 비율이 요소가격의 비율과 같아지는 조건을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비율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Q = 2L^3K^2$이고, 노동의 임금은 $w = 12$, 자본의 임대료는 $r = 4$이다. 구할 것은 비용최소화점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비율 K/L이다.

사용할 공식

비용최소화의 내부해에서는 $\frac{MP_L}{MP_K} = \frac{w}{r}$가 성립한다. 같은 비용으로 두 요소를 바꿀 때 생산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면, 각 요소에 지출한 1원당 한계생산물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MP_L = \frac{\partial Q}{\partial L} = 6L^2K^2$이고,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MP_K = \frac{\partial Q}{\partial K} = 4L^3K$이다.
따라서 $\frac{MP_L}{MP_K} = \frac{6L^2K^2}{4L^3K} = \frac{3K}{2L}$이다.
요소가격비율은 $\frac{w}{r} = \frac{12}{4} = 3$이므로 $\frac{3K}{2L} = 3$이다. 따라서 $K = 2L$이며, 자본은 노동의 2배 투입된다.

선지 판단

① X. '노동을 자본의 2배 투입'은 $L = 2K$를 뜻하지만, 계산 결과는 $K = 2L$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한다.
② X. '노동을 자본의 4배 투입'은 $L = 4K$를 뜻하여 최적비율과 다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한다.
③ O. $K = 2L$이므로 자본은 노동의 2배 투입된다.
④ X. '자본을 노동의 4배 투입'은 $K = 4L$를 뜻하지만, 최적비율은 $K = 2L$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자본을 노동의 2배 투입한다.
계산 결과 자본이 노동의 2배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한계생산물비율 MP_L/MP_K을 계산한 뒤 L/K와 K/L를 뒤집는 실수가 핵심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K/L = 2$이므로 '자본을 노동의 2배'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에서 MP_L과 MP_K를 각각 구한 뒤 $MP_L/MP_K = w/r$을 세운다. 마지막에는 도출한 비율이 K/L인지 L/K인지 확인하여 선지의 문장으로 바꾼다.

암기 포인트

비용최소화는 $MP_L/MP_K = w/r$이며, 한계생산물비율과 요소가격비율을 일치시킨다.

NoteBase

문 5. 정부가 X재에 대하여 종량세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른다)

◯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 X재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나)의 보조금 혜택이 커진다.

① (가): 소비자, (나): 소비자
② (가): 소비자, (나): 생산자
③ (가): 생산자, (나): 소비자
④ (가): 생산자, (나): 생산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량세의 세부담과 보조금의 혜택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누구에게 더 크게 귀착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금의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는 가격 상승에도 구매량을 크게 줄이지 못하므로 세부담을 더 많이 진다.
보조금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이 커지므로 소비자의 보조금 혜택이 더 커진다.
즉,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 부담은 소비자에게, X재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 혜택은 소비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으면 소비자는 가격 상승 뒤에도 수요를 많이 줄이지 못한다. 따라서 종량세의 세부담 중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가격 하락 폭이 커지므로 보조금 혜택도 소비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② X. (나)의 '생산자'가 틀린 표현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 혜택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
③ X. (가)의 '생산자'가 틀린 표현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종량세의 세부담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크게 귀착된다.
④ X. (가)의 '생산자'와 (나)의 '생산자'가 모두 틀린 표현이다. 두 경우 모두 각각 소비자가 더 큰 세부담 또는 보조금 혜택을 갖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세금 부담과 보조금 혜택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외우면 ②·③·④를 고르기 쉽다. 두 경우 모두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부담하거나 누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금 또는 보조금의 대상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중 어느 쪽이 더 비탄력적인지를 확인한다. 더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은 더 많이 부담하고, 보조금은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암기 포인트

비탄력적인 쪽은 세금도 더 부담하고 보조금도 더 누린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어느 재화의 시장수요함수, 시장공급함수, 각 기업의 총비용함수이다. 현재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각 기업의 이윤과 기업의 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시장수요함수: $Q_D = 650 - 10P$
◯ 시장공급함수: $Q_S = 120P$
◯ 기업의 총비용함수: $C(q) = 100 + \frac{q^2}{20}$ (단, P는 가격이고, q는 각 기업의 생산량이다)

① 이윤: 25, 기업의 수: 10
② 이윤: 25, 기업의 수: 12
③ 이윤: 50, 기업의 수: 10
④ 이윤: 50, 기업의 수: 12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을 구한 뒤, 개별기업의 $P = MC$ 조건과 시장공급량을 이용하여 이윤과 기업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수요함수는 $Q_D = 650 - 10P$, 시장공급함수는 $Q_S = 120P$이다. 개별기업의 총비용함수는 $C(q) = 100 + q^2/20$이다. 시장공급량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모든 기업의 생산량 합계이다.

사용할 공식

시장균형에서는 $Q_D = Q_S$가 성립한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P =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윤은 $\pi = TR - TC = Pq - C(q)$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시장균형에서 $650 - 10P = 120P$이므로 $P = 5$, 시장균형량은 $Q = 600$이다.
한계비용은 $MC = C'(q) = q/10$이다. $P = MC$이므로 $5 = q/10$, 따라서 기업 1곳의 생산량은 $q = 50$이다.
기업 수는 $600/50 = 12$이다. 기업 1곳의 수입은 $TR = 5 \times 50 = 250$, 총비용은 $TC = 100 + 50^2/20 = 225$이므로 이윤은 $\pi = 250 - 225 = 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이윤 25는 맞지만 기업의 수가 10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기업 수는 시장균형량 600을 기업당 생산량 50으로 나눈 12이다. 기업의 수 10 → 올바르게는 기업의 수 12이다.
② O. 기업 1곳의 이윤은 25이고, 시장에는 12개 기업이 존재한다.
③ X. 이윤 50과 기업의 수 10이 모두 틀리다. 이윤 50 → 올바르게는 이윤 25이고, 기업의 수 10 → 올바르게는 기업의 수 12이다.
④ X. 기업의 수 12는 맞지만 이윤 50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이윤 50 → 올바르게는 이윤 25이다.

오답 포인트

총비용함수의 고정비용 100을 빼뜨리면 이윤을 125로 잘못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시장공급함수 $Q_S = 120P$만 보고 기업 수를 정하지 않고, $P = MC$로 기업당 생산량을 먼저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시장 문항에서는 먼저 $Q_D = Q_S$로 시장가격과 시장량을 구한다. 다음으로 $P = MC$에서 기업당 생산량을 구하고, 시장량을 기업당 생산량으로 나누어 기업 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Pq - C(q)$로 기업 이윤을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 시장은 $Q_D = Q_S$, 기업은 $P = MC$, 이윤은 $TR - TC$이다.

NoteBase

문 7. 고정비용이 존재하며 평균가변비용곡선이 U자형을 띠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을 띠지 않을 수도 있다.

② 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

③ 평균총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에서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④ 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이 평균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보다 작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평균가변비용, 평균총비용, 한계비용의 관계와 각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의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균가변비용은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비용이고, 평균총비용은 평균가변비용에 평균고정비용을 더한 비용이다. 평균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늘수록 계속 하락한다.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총비용이 각각 최소일 때 그 평균비용곡선과 만난다. 평균가변비용의 최소점에서는 평균총비용이 아직 하락 중이므로, 평균총비용의 최소 생산량이 더 크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을 띠지 않을 수도 있다'이다. 평균가변비용곡선이 U자형이고 평균고정비용은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하므로, 평균총비용곡선도 통상 U자형을 이룬다.

② X. 틀린 표현은 '평균가변비용이 최저가 되는 점에서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한다'이다. 평균가변비용이 최소인 점에서는 한계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일치한다. 평균총비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은 평균총비용이 최소인 점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한계비용은 증가한다'이다. 평균총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이 모두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이 두 평균비용보다 낮다는 것만 알 수 있다. 한계비용의 증감 방향은 이 조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④ O. 평균가변비용이 최소인 점에서는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과 같지만 평균총비용보다 낮다. 따라서 평균총비용은 그 뒤에도 더 하락한 후 최소가 되므로, 평균가변비용 최소 생산량이 평균총비용 최소 생산량보다 작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한계비용이 평균비용과 만나는 두 지점을 같은 지점으로 혼동하게 만든다.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은 평균총비용의 최저점보다 왼쪽에 있다. ③은 평균비용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한계비용 자체의 하락 또는 상승과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비용곡선이 하락하면 한계비용은 그 평균비용보다 낮고, 상승하면 한계비용은 그 평균비용보다 높다.
평균가변비용과 평균총비용의 최소점에서는 각각 한계비용이 해당 평균비용과 만난다는 관계를 먼저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MC=AVC의 최소점은 먼저, MC=ATC의 최소점은 나중이다.

NoteBase

문 8.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 균형 상태에서 기업들은 초과설비를 보유한다.
ㄴ. 기업들은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ㄷ. 기업들은 시장가격을 곧 자신의 한계수입으로 인식한다.
ㄹ.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 간의 이질성이 높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 상품 차별화, 한계수입, 진입의 자유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시장은 많은 기업이 서로 차별화되었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이다.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되지만, 기업은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하므로 초과설비를 가진다. 차별화 때문에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따라서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은 장기균형에서 기업이 평균비용 최소점보다 적은 산출량을 생산하므로 초과설비를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ㄴ은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가까운 대체재라는 독점적 경쟁의 특징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ㄹ의 '이질성이 높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이다. 상품 차별화는 존재하지만 기본 독점적 경쟁모형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진입장벽이 없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상품은 차별화되어 있으나 진입장벽은 없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ㄷ의 '시장가격을 곧 자신의 한계수입으로 인식한다'이다. 이는 완전경쟁기업의 성질이다. 독점적 경쟁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추가 판매를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며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다. 올바르게는 '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이다.
④ X: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ㄷ은 가격과 한계수입을 같게 본 점이 틀렸고, ㄹ은 상품 차별화를 진입장벽의 존재와 연결한 점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작고 진입장벽은 없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품 차별화와 진입장벽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기 쉽다. 독점적 경쟁에서는 차별화가 개별 기업의 가격결정력을 만들지만, 다른 기업의 진입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또한 가격과 한계수입의 일치는 완전경쟁의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적 경쟁이 나오면 '차별화된 가까운 대체재, 장기 경제적 이윤 0, 초과설비,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큼, 자유로운 진입'을 차례로 대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적 경쟁은 차별화는 있지만 진입장벽은 없고, 장기에는 초과설비가 남는다.

NoteBase

문 9. 수요함수가 $Q = 100 - 2P$로 주어져 있을 때, 가격에 대한 수요의 점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위한 P의 구간은? (단, P는 가격이고, Q는 수량이다)

① $0 < P < 25$

② $25 < P < 50$

③ $0 < P < 50$

④ $P > 5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선형 수요함수에서 점가격탄력성을 계산하여 비탄력적인 가격 구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 = 100 - 2P$이고, 가격 P가 1단위 변할 때 수요량은 2단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수요량이 0 이상인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범위는 $0 < P < 50$이다.

사용할 공식

점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E_d| = \left|\frac{dQ}{dP} \cdot \frac{P}{Q}\right|$이다. 이 문제는 가격에 따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일정하지만 P/Q의 값이 달라지므로, 특정 가격에서의 점탄력성을 구해야 한다.

계산 과정

$\frac{dQ}{dP} = -2$이므로 $|E_d| = \left|-2 \cdot \frac{P}{100 - 2P}\right| = \frac{P}{50 - P}$. 비탄력적 수요의 조건은 $|E_d| < 1$이다. 따라서 $\frac{P}{50 - P} < 1$에서 $P < 25$를 얻는다. 가격은 양수이므로 비탄력적인 구간은 $0 < P < 25$이다.

선지 판단

① O. $0 < P < 25$이면 $|E_d| = \frac{P}{50 - P} < 1$이므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② X. '$25 < P < 50$'가 틀린 표현이다. 이 구간에서는 $|E_d| > 1$이므로 수요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구간은 $0 < P < 25$이다.
③ X. '$0 < P < 50$' 전체가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틀리다. $P = 25$에서는 단위탄력적이고, $25 < P < 50$에서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인 부분만 $0 < P < 25$이다.
④ X. '$P > 50$'가 틀린 표현이다. 이때 주어진 수요함수는 $Q < 0$을 나타내어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요 구간이 아니다. $P > 25$라고 해서 비탄력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선형 수요곡선이라고 해서 가격탄력성이 모든 점에서 일정한 것은 아니다. ③처럼 양의 수요가 가능한 전체 구간을 답으로 고르거나, ②처럼 $P = 25$를 기준으로 탄력성과 비탄력성을 반대로 판단하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함수에서는 먼저 $|E_d| = \left|\frac{dQ}{dP} \cdot \frac{P}{Q}\right|$에 수요함수를 대입한다. 그다음 $|E_d| < 1$, $|E_d| = 1$, $|E_d| > 1$을 각각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탄력적으로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낮고 수요량이 큰 구간은 비탄력적, 중점은 단위탄력적, 가격이 높고 수요량이 작은 구간은 탄력적이다.

NoteBase

문 10.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생계비 변화의 추정치로 사용될 때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대체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ㄴ. 상품 품질의 변화가 생계비에 주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는다.
ㄷ. 새로운 상품의 도입으로 인한 생계비 하락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CPI가 고정된 소비 바구니를 바탕으로 산출될 때 생기는 대체편의, 품질변화 편의, 신상품 편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체편의는 상대가격이 변하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싼 상품으로 소비를 바꾸는데, 고정된 품목과 가중치의 CPI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품질변화 편의는 가격 변동 중 품질 향상·저하에 따른 부분을 정확히 분리하지 못해 물가 변동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신상품 편의는 새 상품이 제공하는 선택 폭 확대와 생계비 하락 효과를 기존 CPI 바구니가 늦게 반영하는 문제이다.
세 편의 모두 CPI가 실제 생계비 변화를 완전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만 고른 것이 틀렸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대체효과를 CPI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ㄱ은 옳지만, 품질변화의 영향에 관한 ㄴ과 신상품 도입의 생계비 하락 효과에 관한 ㄷ도 옳다. 틀린 표현은 'ㄱ만'이며, 올바르게는 ㄱ·ㄴ·ㄷ을 모두 고른다.
② X: ㄱ, ㄴ만 고른 것이 틀렸다. ㄱ은 고정 바구니가 대체효과를 놓친다는 설명이고, ㄴ은 품질 변화가 물가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그러나 신상품이 소비자 후생을 높여 실제 생계비를 낮추는 효과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ㄷ도 옳다. 틀린 표현은 'ㄱ, ㄴ만'이며, 올바르게는 ㄱ·ㄴ·ㄷ을 모두 고른다.
③ X: ㄴ, ㄷ만 고른 것이 틀렸다. ㄴ과 ㄷ은 각각 품질변화 편의와 신상품 편의를 설명하므로 옳다. 또한 상대가격 변화 뒤 소비자가 싼 상품으로 대체하는 행동을 고정 바구니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ㄱ도 CPI의 문제점이다. 틀린 표현은 'ㄴ, ㄷ만'이며, 올바르게는 ㄱ·ㄴ·ㄷ을 모두 고른다.
④ O: ㄱ·ㄴ·ㄷ은 각각 대체효과 미반영, 품질변화 미반영, 신상품 도입에 따른 생계비 하락 효과 미반영을 말한다. 모두 CPI의 대표적인 측정상 한계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ㄱ의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싼 상품으로 소비를 바꾸는 행동'이고, ㄷ의 신상품 효과는 '새 상품이 늘려 주는 선택과 후생'이다. 둘 다 고정된 소비 바구니의 한계에서 나오지만, 하나만 CPI의 문제점이라고 좁혀 판단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PI의 문제점을 묻는 경우 소비자 행동이 바뀌는가, 상품의 질이 바뀌는가, 새 상품이 등장하는가를 차례로 확인한다. 이 문항처럼 세 상황이 모두 제시되면 대체편의·품질변화 편의·신상품 편의에 각각 대응시켜 모두 포함한 조합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CPI의 고정 바구니 한계는 대체·품질·신상품의 세 가지이다.

NoteBase

문 11. 경제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는 짧지만 외부시차는 길다.

② 자동안정화장치의 사례로 누진소득세나 실업보험을 들 수 있다.

③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경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④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에 의하면 재량적 정책이 준칙을 따르는 정책보다 바람직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제안정화정책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시차·효과를 비교하고,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정책준칙을 지지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시차는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외부시차는 정책 시행 후 산출·고용 등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통화정책은 일반적으로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길며,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별도의 정책결정 없이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나 이전지출이 자동으로 변하여 총수요 변동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동태적 비일관성은 사후에 재량적으로 최적처럼 보이는 정책을 선택하면 사전에 약속한 정책과 달라져 민간의 기대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준칙이 재량적 정책보다 바람직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결정·집행이 비교적 신속하여 내부시차는 짧다. 반면 금리 변화가 투자·소비를 거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므로 외부시차는 길다.

② O. 누진소득세는 소득이 감소하면 세부담이 자동으로 줄고, 실업보험은 실업 증가 시 급여지급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둘 다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사례이다.

③ O. 유동성함정에서는 화폐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총수요 확대 효과가 약하다. 이 경우 정부지출 확대 등의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재량적 정책이 준칙을 따르는 정책보다 바람직하다'이다.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재량적 정책이 민간의 합리적 기대 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뜻하므로, 올바르게는 '준칙을 따르는 정책이 재량적 정책보다 바람직하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최적'이라는 말 때문에 재량적으로 상황에 맞추는 정책이 더 좋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한 선지이다. 그러나 동태적 비일관성의 핵심은 사후 재량이 사전 약속을 깨뜨려 정책의 신뢰성을 낮춘다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책시차는 통화정책=짧은 내부시차·긴 외부시차, 재정정책=긴 내부시차·짧은 외부시차로 비교한다. '자동'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별도 정책결정 없이 세금·이전지출이 경기와 함께 변하는지 확인한다. 동태적 비일관성은 재량보다 신뢰 가능한 준칙을 지지하는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통화는 안은 짧고 밖은 길다. 재정은 안은 길고 밖은 짧다. 동태적 비일관성은 재량보다 준칙이다.

NoteBase

문 12.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 증가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화폐공급 증가 이전의 총생산량은 자연생산량이다)

① 단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② 단기균형에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③ 장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④ 장기균형에서 물가수준은 상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 증가가 단기와 장기의 총생산량 및 물가수준에 미치는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단기는 물가와 임금의 조정이 완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총수요 증가가 총생산량과 물가수준을 함께 높인다. 장기는 물가와 임금이 조정되어 총생산량이 자연생산량으로 돌아가고, 물가수준만 상승한 상태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예상치 못한 화폐공급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며, 단기에는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총생산량이 자연생산량보다 증가한다.
② O. 총수요 증가로 단기균형의 물가수준도 상승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장기균형에서 총생산량은 증가한다'이다. 장기에는 임금과 물가의 조정으로 총생산량이 증가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연생산량으로 복귀한다.
④ O. 장기에는 총생산량이 자연생산량으로 복귀하지만, 화폐공급 증가의 결과 물가수준은 이전보다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단기의 생산량 증가를 장기에도 그대로 적용한 선지이다. 화폐공급 증가는 장기적으로 실질 총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공급 증가가 예상되지 않았고 초기 총생산량이 자연생산량이면, 단기에는 총생산량과 물가수준이 모두 상승하는지 확인한다. 이어 장기에는 총생산량이 자연생산량으로 복귀하고 물가수준만 높아지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화폐공급 증가: 단기에는 생산량·물가 상승, 장기에는 생산량 자연생산량 복귀·물가 상승이다.

NoteBase

문 13.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
ㄴ. 로또(lotto) 당첨은 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ㄷ. 소비자의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이다.
ㄹ. 경기 호황기에 항상소득은 증가하고 일시소득은 감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상소득가설에서 소비를 결정하는 항상소득과 실제소득을 구성하는 일시소득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항상소득은 장기에 걸쳐 기대되는 정상적·지속적 소득으로, 소비의 주된 결정요인이다. 일시소득은 경기변동이나 우발적 소득처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변동분이다.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으로 나타낸다.
항상소득은 소비와 연결되고, 일시소득은 일시적이므로 소비보다 저축에 더 크게 반영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로또 당첨은 일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소득의 증가는 저축에 영향을 준다. 틀린 표현은 '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고, 올바르게는 '일시소득인 로또 당첨은 주로 저축을 증가시킨다'이다.
② O: ㄱ과 ㄷ은 모두 옳다. 소비는 항상소득에 주로 의존하고,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성된다.
③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ㄴ의 로또 당첨은 저축에 영향을 준다. ㄹ의 '호황기에 항상소득은 증가하고 일시소득은 감소한다'도 틀리다. 경기 호황에 따른 단기적 소득 증가는 일시소득의 증가로 보며, 일시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옳은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ㄹ의 '일시소득은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경기변동으로 발생한 단기적 소득 증가는 일시소득의 증가에 해당한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은 로또 당첨을 소비와 무관한 소득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로또 당첨 같은 일시소득을 대부분 저축하므로 저축에 영향을 준다. ㄹ은 호황기의 소득 변동을 항상소득의 증가로, 일시소득의 감소로 뒤바꾼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항상소득, 경기변동·우발적 사건으로 한때 발생하면 일시소득으로 분류한다. 소비는 항상소득 중심으로 판단하고,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항상소득은 소비를 결정하고, 일시소득은 저축으로 흡수된다. 실제소득 = 항상소득 + 일시소득이다.

NoteBase

문 14. 갑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K^{0.2}L^{0.8}$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 자본증가율이 5%, 노동증가율이 4%일 때, 갑국의 경제성장률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 L는 노동이다)

① 4.2%

② 5.2%

③ 8.0%

④ 1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총요소생산성·자본·노동의 증가율로 경제성장률을 구하는 성장회계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생산함수는 $Y = AK^{0.2}L^{0.8}$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 자본증가율은 5%, 노동증가율은 4%이다.
자본과 노동의 지수 0.2, 0.8은 각각 성장률에 곱하는 기여도이다.

사용할 공식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Y = AK^{\alpha}L^{\beta}$의 성장률은 $g_Y = g_A + \alpha g_K + \beta g_L$이다. 생산함수의 지수는 각 생산요소가 산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므로, 각 요소의 증가율에 해당 지수를 곱해 더한다.

계산 과정

1.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분은 1%이다.
2. 자본의 기여분은 $0.2 \times 5\% = 1.0\%$이다.
3. 노동의 기여분은 $0.8 \times 4\% = 3.2\%$이다.
4.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1.0\% + 1.0\% + 3.2\% = 5.2\%$이다.

선지 판단

① X: 4.2%는 계산 결과 5.2%와 다르다. 틀린 표현 '4.2%' → 올바르게는 '5.2%'이다. 4.2%는 총요소생산성 1%와 노동 기여분 3.2%만 더하고 자본 기여분 1.0%를 빠뜨렸을 때 나오는 값이다.
② O: 성장회계식에 대입한 결과가 5.2%이므로 옳다.
③ X: 8.0%는 계산 결과 5.2%와 다르다. 틀린 표현 '8.0%' → 올바르게는 '5.2%'이다. 자본·노동 증가율을 지수 0.2, 0.8로 가중하지 않고 처리하면 오답이 생긴다.
④ X: 10.0%는 계산 결과 5.2%와 다르다. 틀린 표현 '10.0%' → 올바르게는 '5.2%'이다. 10.0%는 1%+5%+4%로 각 증가율을 단순 합산하여 생산요소 지수를 무시한 값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④처럼 자본증가율과 노동증가율을 그대로 더하면 안 된다. 자본은 0.2, 노동은 0.8만큼만 산출 증가율에 기여한다. ①은 자본의 기여분을 누락한 경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의 각 지수를 확인한 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는 1을 그대로 적용하고 자본·노동 증가율에는 각각의 지수를 곱하여 모두 더한다.

암기 포인트

성장회계는 'TFP 그대로 + 자본증가율×자본지수 + 노동증가율×노동지수'이다.

NoteBase

문 15. 이자율 기간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만기의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그 이자율은 낮다.

② 시장분리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 간에 대체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③ 기대이론은 장기이자율과 단기이자율의 역전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장기채권일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자율 기간구조이론 중 시장분리이론, 기대이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 장기채권과 단기채권의 이자율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묻는다.

핵심 개념

시장분리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시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며, 각 만기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해당 만기의 이자율을 결정한다고 본다.
기대이론은 장기이자율이 현재와 미래의 단기이자율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본다.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은 장기채권의 더 큰 가격변동위험과 낮은 유동성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추가 보상인 유동성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특정 만기 채권에 대한 선호, 즉 수요가 커지면 그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인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는 시장분리이론에서 만기별 수요·공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설명과 맞는다.
② O. 시장분리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이 서로 완전한 대체재가 아니며, 각 만기별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역전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이다. 기대이론에서는 미래 단기이자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이자율이 단기이자율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④ O. 장기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이 커지고 현금화의 불편도 커질 수 있으므로,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한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③은 기대이론이 장단기 이자율의 움직임을 연결하지 못한다고 오인하게 한다. 기대이론의 핵심은 장기이자율이 미래 단기이자율 기대를 반영한다는 것이므로, 미래 단기이자율 하락 기대는 역전 수익률곡선의 근거가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기별 채권이 대체되지 않고 각 시장의 수요·공급을 강조하면 시장분리이론, 미래 단기이자율의 예상 경로를 강조하면 기대이론, 장기채권의 위험 보상을 더하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분리=만기별 수요·공급, 기대=미래 단기금리 예상, 유동성 프리미엄=장기일수록 추가 보상이다.

NoteBase

문 16. 리카르도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지출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② 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③ 소비자들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성립한다.

④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정책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리카르도 등가정리의 성립 가정, 특히 소비자의 유동성 제약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정부가 국채로 감세하더라도 가계가 미래의 조세 부담을 예상하여 저축을 늘리므로 현재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성립하려면 정부지출이 일정하고, 조세가 왜곡을 만들지 않으며, 소비자가 유동성 제약을 받지 않는 등의 가정이 필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지출이 달라지면 정부의 순자산과 민간이 예상하는 미래 조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국채발행과 조세의 재원조달 방식만을 비교하는 등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지출은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② O. 조세가 노동공급·저축 등 경제주체의 선택을 왜곡하면 조세와 국채의 효과가 같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조세에 따른 왜곡이 없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③ X. 틀린 표현은 '성립한다'이다.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소비자는 미래소득을 담보로 충분히 차입할 수 없어 감세로 늘어난 현재 가처분소득을 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유동성 제약이 있는 경우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O. 위 가정들이 충족되면 국채발행을 통한 감세는 미래 증세를 예상한 민간저축 증가로 상쇄된다. 따라서 현재 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③은 유동성 제약의 효과를 반대로 서술한 선지이다. 유동성 제약이 없을수록 가계가 미래 조세를 고려해 저축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발행 감세의 효과를 묻는 문제에서는 '가계가 미래 증세를 예상해 현재 저축을 늘릴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한다. 유동성 제약, 왜곡적 조세, 유한한 기간 등의 가정 위반이 있으면 리카르도 등가정리는 약화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리카르도 등가정리: 국채 감세 → 미래 증세 예상 → 저축 증가 → 현재 소비 불변이다. 유동성 제약은 등가정리의 성립을 깨는 요인이다.

NoteBase

문 17. 소국경제인 A국의 X재 시장에서 시장개방 전 균형가격은 200원이며 균형거래량은 500개였다. 시장개방 이후 X재 가격은 국제가격인 120원으로 하락하고, 생산량과 소비량은 각각 100개와 700개가 되었다. A국의 X재 시장개방 효과로 옳은 것은? (단, A국의 X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① 소비자잉여는 48,000원 증가한다.

② 생산자잉여는 24,000원 증가한다.

③ 총잉여는 12,000원 증가한다.

④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모두 증가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장개방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아래의 삼각형 넓이를 이용하여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개방 전 가격은 200원, 거래량은 500개이다. 시장개방 후 가격은 120원, 소비량은 700개, 생산량은 100개이다.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직선이므로 잉여는 삼각형 넓이로 계산된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잉여는 (1)/(2) ×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시장가격) × 소비량이다. 생산자잉여는 (1)/(2) × (시장가격-공급곡선의 가격절편) × 생산량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직선이므로 각 잉여 영역이 삼각형이 되어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수요곡선은 가격이 200원일 때 500개, 120원일 때 700개이므로 가격이 80원 하락할 때 수요량이 200개 증가한다. 이를 직선으로 연장하면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은 400원이다. 따라서 소비자잉여는 시장개방 전 (1)/(2) × (400-200) × 500=50,000원, 시장개방 후 (1)/(2) × (400-120) × 700=98,000원이다. 소비자잉여는 98,000-50,000=48,000원 증가한다.

공급곡선은 가격이 200원일 때 500개, 120원일 때 100개이므로 가격이 80원 하락할 때 생산량이 400개 감소한다. 이를 직선으로 연장하면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은 100원이다. 따라서 생산자잉여는 시장개방 전 (1)/(2) × (200-100) × 500=25,000원, 시장개방 후 (1)/(2) × (120-100) × 100=1,000원이다. 생산자잉여는 1,000-25,000=-24,000원으로 24,000원 감소한다. 총잉여 변화는 48,000-24,000=24,000원 증가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소비자잉여는 50,000원에서 98,000원으로 변하므로 48,000원 증가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24,000원 증가한다'이다. 생산자잉여는 25,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 24,000원 감소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12,000원 증가한다'이다. 소비자잉여 증가분 48,000원에서 생산자잉여 감소분 24,000원을 빼면 총잉여는 24,000원 증가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모두 증가한다'이다. 가격 하락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지만, 국내 생산자의 판매가격과 생산량을 낮추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생산자잉여의 감소분 24,000원을 부호만 바꾸어 증가로 적은 선지이다. ③은 소비자잉여 증가분과 생산자잉여 감소분을 정확히 상계하지 않아 생기는 오답이다. 가격 하락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가 함께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④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개방 문제에서는 먼저 개방 전후의 가격·국내소비량·국내생산량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수요·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을 구해 각 시점의 삼각형 잉여를 계산하고, 전후 차이에 부호를 붙여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 하락은 소비자잉여 증가, 생산자잉여 감소이며, 총잉여 변화는 두 변화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NoteBase

문 18.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이 성립할 때,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 (단, 환율은 외국 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이다)

① 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예상환율 하락

② 외국 이자율과 예상환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이자율 상승

③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외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④ 외국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자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환율을 외국 통화 1단위당 자국 통화의 비율로 표시할 때, 무위험 이자율 평가식에서 자국 이자율, 외국 이자율, 예상환율의 변화가 현재 환율에 미치는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환율 E는 외국 통화 1단위당 자국 통화의 가격이므로 E가 상승하면 자국 통화는 가치가 하락한다. i는 자국 이자율, i^*는 외국 이자율, E^e는 예상환율이다. 무위험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고 위험프리미엄은 없다고 본다.

사용할 공식

무위험 이자율 평가식은 $1+i=(E^e/E)(1+i^*)$이고, 이를 현재 환율에 대해 정리하면 $E=E^e(1+i^*)/(1+i)$이다. 따라서 예상환율과 외국 이자율은 분자에, 자국 이자율은 분모에 놓인다.

계산 과정

현재 환율 E의 상승 여부만 비교한다. E^e가 상승하면 E는 상승하고, i^*가 상승하면 E는 상승한다. 반대로 자국 이자율 i가 상승하면 분모가 커져 E는 하락하며, i가 하락하면 E는 상승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E는 E^e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상환율 하락'은 현재 환율 하락을 뜻한다. 틀린 표현은 '예상환율 하락'이며, 환율 상승의 조건으로는 '예상환율 상승'이 맞다.

② X. 외국 이자율과 예상환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자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1 + i$가 커져 현재 환율 E는 하락한다. 틀린 표현은 '자국 이자율 상승'이며, 환율 상승의 조건으로는 '자국 이자율 하락'이 맞다.

③ X. 자국 이자율이 고정된 경우 외국 이자율 하락은 분자 $1 + i^*$를 줄여 현재 환율을 하락시키지만, 예상환율 상승은 현재 환율을 상승시킨다. 두 효과가 반대이므로 환율이 반드시 상승한다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반드시 상승'이며, 올바르게는 예상환율 상승 효과가 외국 이자율 하락 효과보다 충분히 클 때에만 상승할 수 있다.

④ O. 외국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자국 이자율 하락은 분모를 줄여 현재 환율을 상승시키고, 예상환율 상승도 현재 환율을 상승시킨다. 두 변화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환율은 반드시 상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두 변수가 함께 변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외국 이자율 하락과 예상환율 상승은 현재 환율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어느 효과가 더 큰지 알 수 없으면 '반드시'라는 표현을 선택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E = E^e(1 + i^*)/(1 + i)$로 정리한 뒤 각 변수가 분자인지 분모인지 확인한다. 한 변화가 분자 증가 또는 분모 감소를 만들면 환율은 상승하고, 서로 반대 방향의 효과가 섞이면 '반드시'라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예상환율 ↑ · 외국 이자율 ↑ 이면 E ↑, 자국 이자율 ↑ 이면 E ↓ 이다.

NoteBase

문 19.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하였으나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승수가 감소하였다.

②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하였다.

③ 상업은행이 실제지급준비율을 높였다.

④ 가계와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이 증가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개시장 매입으로 늘어난 본원통화가 통화량으로 얼마나 확대되는지는 통화승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과 지급준비금을 말하고, 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값이다. 즉 $M = mB$에서 공개시장 매입은 B를 늘리지만, 통화승수 m가 하락하면 최종 통화량 증가는 작아진다.
통화승수는 은행의 실제지급준비율과 가계·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통화승수가 감소하면 같은 규모의 본원통화 증가가 예금통화로 확대되는 정도가 작아진다. 따라서 공개시장 매입의 통화량 증가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
② X —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하였다'가 틀린 표현이다. 은행의 대출 증가는 지급준비금이 예금 창출로 연결되는 과정이므로 통화량 증가를 약화시키는 이유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상업은행의 대출이 감소하거나 초과지급준비금 보유가 증가한 경우가 통화량 증가 효과를 낮춘다.
③ O — 실제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예금 중 더 큰 비율을 준비금으로 보유하여 대출·예금 창출이 줄어든다. 그 결과 통화승수가 하락한다.
④ O — 가계와 기업의 현금보유성향이 높아지면 예금으로 남아 여러 차례 대출되는 자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통화승수가 하락하여 통화량 증가 효과가 작아진다.

오답 포인트

②처럼 '대출 증가'를 통화량 증가 효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공개시장 매입 후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지급준비금이 예금 창출로 이어지므로 오히려 통화량 확대를 돕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개시장 매입의 효과가 작다는 문구가 나오면 본원통화 자체의 증가 여부와 통화승수의 하락 요인을 분리해 판단한다. 실제지급준비율 상승, 현금보유성향 상승, 대출 축소는 통화승수를 낮추는 방향이다.

암기 포인트

준비금·현금 보유은 늘수록 통화승수는 줄고, 대출은 늘수록 통화창출은 커진다.

NoteBase

문 20. 다음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해를 배출하도록 규제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저감비용은? (단, 기업은 저감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이 공해E를 유발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공해는 외부적인 피해비용을 발생시키며 공해의 한계피해비용함수는 $MDC = 4E$이다. 한편 공해를 줄이려면 기업이 저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한계저감비용함수는 $MAC = 420 - 3E$이다. 현재는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으므로 저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① 7,200

② 9,600

③ 22,400

④ 32,00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오염 배출량에서 한계피해비용과 한계저감비용이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 기업의 총저감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피해비용은 $MDC = 4E$이고 한계저감비용은 $MAC = 420 - 3E$이다. 규제가 없으면 저감을 전혀 하지 않으므로 $MAC = 0$인 배출량이 최초 배출량이다.

사용할 공식

사회적 최적 배출량은 $MDC = MAC$에서 결정된다. 총저감비용은 저감 전 배출량부터 최적 배출량까지 한계저감비용을 적분한 면적, 즉 $\int_{E^*}^{E_0} MAC dE$이다. 오염을 한 단위 줄일 때마다 드는 비용이 한계저감비용으로 주어졌으므로, 총비용은 그 한계비용을 누적하여 구한다.

계산 과정

1. 사회적 최적 배출량은 $4E = 420 - 3E$이므로 $E^* = 60$이다.
2. 규제가 없을 때는 저감하지 않아 $MAC = 0$이므로 $420 - 3E_0 = 0$, $E_0 = 140$이다. 따라서 80단위를 저감한다.
3. 총저감비용은 $\int_{60}^{140} (420 - 3E) dE = [420E - \frac{3}{2}E^2]_{60}^{140} = 9,60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7,200은 필요한 총저감비용이 아니다. $\int_0^{60} 4E dE = 7,200$은 최적 배출량 60에서의 누적 피해비용에 해당하며, 저감비용은 9,600이다. 틀린 값 7,200 → 올바른 저감비용은 9,600이다.
② O. 저감 전 배출량 140에서 사회적 최적 배출량 60까지의 한계저감비용을 누적하면 9,600이므로 옳다.
③ X. 22,400은 $\int_{60}^{140} (420 - 3E) dE$의 값이 아니다. 틀린 값 22,400 → 올바른 총저감비용은 9,600이다.
④ X. 32,000은 한계저감비용을 올바른 구간에서 누적한 값이 아니다. 틀린 값 32,000 → 올바른 총저감비용은 9,600이다.

오답 포인트

최적 배출량 60을 구한 뒤 $60 \times MAC$처럼 직사각형 면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한계저감비용은 배출량에 따라 변하므로, 저감 전 배출량 140과 최적 배출량 60 사이의 면적을 적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효과 규제 문제에서는 먼저 $MDC = MAC$으로 사회적 최적 배출량을 구한다. 다음으로 저감 전 배출량은 $MAC = 0$에서 찾고, 두 배출량 사이의 한계저감비용 면적을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적 최적점은 $MDC = MAC$, 총저감비용은 한계저감비용의 누적면적이다.

NoteBase